

얼음 깨기

나우루의 비극

오세아니아 미크로네시아에 위치한 나우루 공화국. 인구 1만 명 정도에, 올롱도의 1/3 크기의 작은 이 섬나라는 인광석이라는 희귀자원이 풍족한 섬이어서 1980년대에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가는 부자나라였 습니다. 나우루 공화국은 인광석으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돈을 국민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 행합니다. 덕분에 나우루 공화국 국민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소비하는 생활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 나 그 상태로 30년이 지나자 인광석의 채굴량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나우루 공화국의 인광석 또한 결국 고 갈되었습니다. 기난해진 나우루 공화국 국민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는데, 청소하는 법, 요리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고, 고기잡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놀고먹던 국민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일하는 즐거움을 잊어버린 그들에게는 나태함과 무기력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이 아니라 무리하게 땅을 파헤쳐 섬의 고도가 낮아졌는데, 그 때문에 만약 수면이 높아질 경우 섬이 통째로 가라앉을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나우루의 비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풍족함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경배 찬양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 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 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후렴)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교회 소식

1. 전도회 2025년을 위한 새로운 남, 여전도회가 편성되었습니다. 25년을 이끌 새로운 리더를 12월 7일까지 뽑아 주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모임에 감사 함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탄절 선물 보내기 우리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23가정의 선교사 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보내려고 합니다. 11월 10일 주일까지 사랑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가) 품목: 과자류, 식품류(김, 미역, 건조가공 식품류 등), 식료품(라면, 참치캔 등), 양념류(고추장, 된장, 액젓, 간장 등), 양말, 여성용품

나) 문의: 김윤숙 간사 010-3006-9638

다) 후원계좌: 대건신협 134-004-691397 더온누리교회

교회행사

11월

- 2일 세례문답식, 신임투표
- 3일 세례식
- 10일 성찬식
- 13일 마하나임, 트리니티 찬양예배
- 17일 추수감사주일, 2기 더가족 세미나

12월

- 8일 더가족세미나 종강
- 24일 성탄전야
- 25일 성탄
- 31일 송구영신예배

선교

[이민교 선교사]

우즈베키스탄

1. 이슬람 땅에 농야교회가 법적으로 등 록되게 하소서
2. 다음세대인 농야교회 청소년들에게 믿음이 흘러가게 하소서.
3. 매주 월요일마다 ZOOM으로 진행하는 성경공부가 농야신학교의 초석이 되 게 하소서

한문장 큰 울림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갈망을 가졌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이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세계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설명일 것이다”

- C.S 루이스 -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딤후 6:7-8)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른 진리를 떠나 다른 교훈을 좇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묘사하며 그들을 경계하라고 1:3-7에 이어 재차 강조합니다.

1. 거짓 교사들은 누구일까? (3절)

그들은 바른 믿음에서 이탈한 자들입니다. 이는 당시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초대 교회에 신앙의 표준이 있었음을 본문은 암시합니다. “교훈(1, 3절 하), 바른 말(3절), 진리(5절), 믿음(10, 12, 21절), 명령(14절), 네게 부탁한 것(20절)” 등에서 거짓 교사들은 벗어났습니다. 3절은 건강하고 바른 가르침을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소유격으로 번역했으나 원문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격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바른 말로 해석하지만, 일부 다른 번역본에서는 목적격으로 번역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도 됩니다. 즉, 이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다는 전제가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딤후 5:18과 행 20:35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의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의 말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70명의 전도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눅 10:16)” 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권위로 명령하고 권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고 드러냈습니다(고후 13:3). 둘째, 경건에 관한 교훈이다. 직역하면 “경건과 일치하는 가르침”인데, 정리하자면, 바른 가르침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어야 하고 경건함을 증진 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 게 됩니다(4절 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결국 자신을 낮추어 그 앞에서 떨거나,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목을 곧게 하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2. 거짓 가르침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4-5절)

첫째,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분열시키는데(4절), 그 방법은 “변론과 언쟁(궤변과 말싸움)”입니다. 이것의 결과에 대해 다섯 가지로 나열하는데, “투기(다른 사람의 재능에 대한 불평)”, “분쟁(경쟁하고 다투려는 마음)”, “비방(경쟁 상대인 교사에 대한 부당한 행동)”, “악한 생각(교제가 의심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다툼(성급한 마음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악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의 특징입니다(5절 하). 사람들의 마음이 뒤틀려 있을 때는 모든 인간관계 역시 뒤틀리기 마련입니다. 둘째, 거짓 교사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5절 하). 당시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아르테미스) 숭배와 관련된 산업을 통해 상당한 부요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탐심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엡 5:3). 인류 역사는 종교를 상업화하려는 시도들로 인해 계속 얼룩져 왔는데, 중세 교회의 면죄부 판매나, 오늘날 이단 종교들의 헌금 갈취 등이 좋은 예입니다.

3.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6-10절)

거짓 진리가 우리를 유혹하는 영역은 참 많다. 본문은 대표적으로 “돈을 추구하는 마음(소유욕)”이라고 제시합니다. 모든 시대를 망라하고 돈은 권력이고 명예입니다. 돈은 인간의 해로운 욕심을 자극하고 끝없는 욕망의 노예로 살다가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돈이나 소유를 삶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는 마음에서 온갖 죄악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방해하는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돈”입니다. 감사와 자족이 떠난 자리에는 언제나 불평과 탐욕이 자리를 차지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아직 누리지 못한 것을 샘하기보다는 이미 가지고도 누리지 못한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 교훈을 따라 사는 바른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한 삶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며,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추구합니다. 돈보다 주님과 말씀을 더 사랑하며, 먹을 것과 입을 것(거처)에 만족합니다. 경건이 자족과 함께 있으면 교만과 탐욕이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경건과 함께하는 자족은 극단적인 자기 부인이나 절제가 아닌, 예수로 꽉 채워진 만족을 경험하게 합니다. 고후 12:9의 말씀이 실체가 된다면, “내(주님의) 은혜가 네게(우리에게) 족하게 됩니다.”

[질문] 오늘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요소는 무엇인가요?

[질문]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추구해야 하나요? 그렇게 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나눔

주일 말씀 [선한 싸움을 위해 중요한 일 / 디모데전서 6:3-10]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점을 나눕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에서 같이 세워갑니다.

기도

바른 지식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게 하소서.
바른 믿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게 하소서.
바른 행하 위기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소서.